

보편성과 향성의 건축

Architecture of Universal Value and Dur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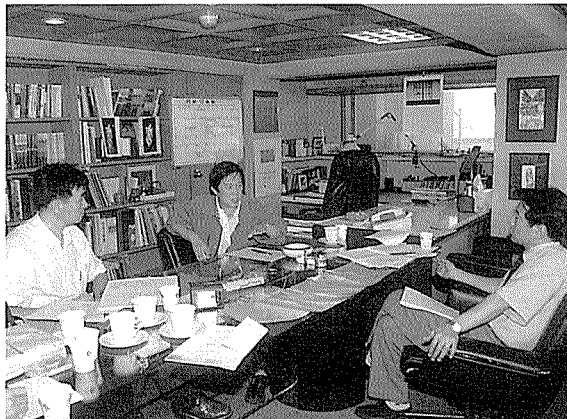
건축사 / 류춘수(이공건축)

대담자 / 심영섭(호서대 건축과 교수)

by Ryu Choon-Soo & Shim Young-Sub

일시 / 98. 9. 16(수) 15:30

장소 / 이공건축 회의실



대담장경(왼쪽: 조용훈, 가운데: 류춘수, 오른쪽: 심영섭)

심영섭 _____ 오랜만에 작품을 발표하시고 공개적인 대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월드컵 상암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류춘수 _____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턴키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아키텍트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규모 또는 턴키설계경험 등으로 선정기준을 잡고 그것이 전례가 되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현상설계가 자칫 제도적인 문제로 대기업의 단독플레이가 될 뻔한 것을 스스로 정통과 건축을 하는지는 몰라도, 외형적 문제를 극복하고 건축적 내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사실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 한동안 저조하셨는데, 업무량의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간단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춘수 _____ 물론 물러나 있었던 것은 자의반 타의반인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중국프로젝트를 한 이후부터 너무 실속없이 유명해져서 내용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도 회사운영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커피선전을 하고 난 후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설계비도 비쌀 것이다, 중국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까 너무 비쌀 것이다 해서 건축주들의 의뢰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일 때문에 회사규모는 이미 커져 있는데 작품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했고 그것이 재충전인지는 몰라도 그때 고향 시골집에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나 스스로도 침잠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대를 이어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포기할 리는 없고 한시라도 현실을 도피한다거나 심지어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각오도 있었을 뿐더러 솔직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나는 “늘 기회는 온다.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심영섭 _____ 이 P교수 주택의 성격과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류춘수 _____ 아주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P 교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경사지 산에 주변풍경이 아름다운 농촌의 분위기인데, 요구하는 규모도 30~50평으로 작고 그러면서도 교수님의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에 대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 정도 돈밖에 없고 생활은 단순하다. 그리고 외부손님이 올 뿐 많은 가족이 없다”는 본인 생활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지형과 공사비와 그리고 내 생활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의견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건축가에게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어렵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주가 이것저것 간섭이

지나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_____ 그렇다면 유명 건축주에 대한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작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류춘수 _____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상관없이 그 땅에 잘 어울리는 집, 이른 바 외국잡지에서나 봄직한 주택의 조형은 아니더라는 생각이었고, 또 건축주가 누구든 나는 그렇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주변풍경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딴 집이기에 어쩔 수 없었던 방법 창살이 좀 시각적으로 거슬리지만 내가 건축주의 생활을 알고 있기에 이해가 됐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주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영섭 _____ 류춘수건축은 폭과 깊이를 함께 지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초고층 오피스, 대형건축물, 단지 및 환경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소화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향성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특히 주택건축을 대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점이나 주택설계의 접근방식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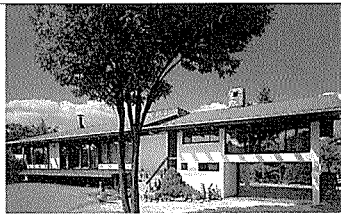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제 방식이 마땅히 없어서 걱정인데, 예전에 어떤 책에 표현하기를 '주택설계는 건축가의 함정' 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 주택설계에서는 자칫 스케일이라든지 어떤 따뜻한 느낌 등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에서나 봄직한, 예를 들어 이상한 조형 형태를 만들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서투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창내고 싶은 곳에 창내고 또 전망좋은 데

는 큰 창을 내고 전망없는 데는 창이 없는, 다만 쓰는 재료가 비싸지도 않으면서 늘 익숙한 재료를 쓰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초가삼간 짓듯 간단한 칸나누기식의 방법은 아니면서도 편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한 주택 중에서 시골 농촌집을 개량한 그곳에 가보면 누구나 좋아하니까, 제일 잘된 집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너무 좋은 조형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의도하다가 나쁜 집을 만든 예를 봐 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은 못 만들어도 나쁜 집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의 주택 설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소박하게 너무나 쓰는 생각은 아니고 필요할 때 건축가가 설계했기 때문에 생겨난 최소한의 아름다움이나 디테일 등은 끝까지 생명력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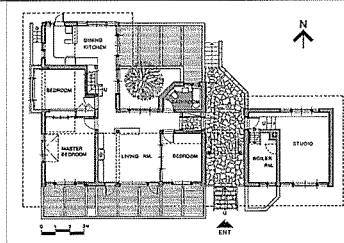
이 P교수집에서는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창 밖으로 시야가 확 트이도록 한 것은 처음 시도한 것인데, 전망위주의 이 집에서는 필요한 공간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좌식 생활하는 집에서는 창호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밖이 보여야 되는데 특히 어린애나 노인이 있을 경우 안전상 반드시 밖에 난간이 필요하고 그 난간은 옛날부터 누마루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기능적이면서 익숙한 우리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건물배치를 보면 대지 한쪽에 치우쳐 있고 비교적 대지가 넓은데 비해 대지전체를 집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지나 주변과의 관계설정이 다른 작품에서 보다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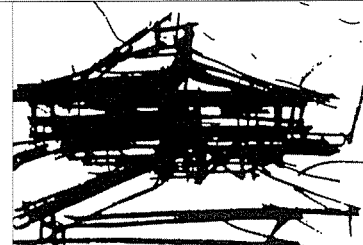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지를 보면 발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과 도로를 포함해 200평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발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부득이 발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도면상에서 경계선은 사실



삼하리 주택(86)



삼하리주택 1층 평면도



청계산 주택(86)

받입니다.

심영섭 _____ 접근하는 부분보다 위의 1층 대지레벨이 한 층정도 높습니다. 원래 자연지형이 그렇게 됐었나요, 아니면 경사지형이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나요?

류춘수 _____ 본래 자연지형 자체가 경사졌는데다가 그냥 앉힐 수가 없어서 거실바닥에서 나오는 마당을 한 단 높이고, 밑의 피로티 지하층을 한층 차이 축벽을 쌓아서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건물의 레벨차가 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까 평면 자체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하층은 피로티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피로티에 창문을 달은 것이 아쉽습니다.

심영섭 _____ 설계소묘에 보면 기존의 발부분을 숲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류춘수 _____ 그것은 건축주의 생각입니다. 발의 면적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재산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본래의 숲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영섭 _____ 제가 보기에 류춘수건축의 특징은 평면에 있다고 봅니다. 즉 작품의 모든 구상이 건설한 평면 구성을 바탕으로 공간이나 형태가 출발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평면구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주택작품에서 보면 목재를 사용하면서 목구조를 바탕으로 칸 구성이 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원적인 풍경과 어울렸는데 이번 경우 겹집형식이 절충되어 있고 목재사용도 칸구성과는 거리가 멀어 외부 입면효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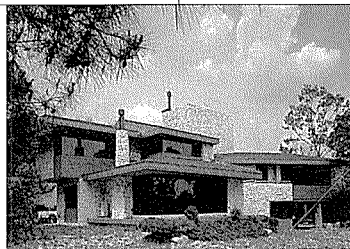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좋은 지적사항인데, 이 집의 본래 설계는 철골로 했었습니다. 철골에 나무를 사용한 한계령 휴게소보다 더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문제로 못했고, 이것을 다시 목구조로 바꾸려니 더 비싸서 느낌만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료함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컨셉을 목구조에 맞는 모듈을 적용하여 거실 부분은 세칸, 안방부분은 두칸 정도의 비율로 나눴고, 실지로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고 면마감만 목구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기둥이 있어야만 컨셉이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파티션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가족 여럿이 사용할 경우 나누어질 수 있는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마루방도 원래는 중간에 문짝을 내어 손님이 오면 쓸 수 있도록 생각했는데... 사실 안방도 반을 쪼개어 쓸 수 있는 칸 사이가 없어진 것은 규모에 비해서 식구 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심영섭 _____ 전후면 외관은 목구조 형상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 류소장님께서 해 오신 작업에서 다소 거리가 먼 접근방식의 절충이라고도 보입니다. 물론 공사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편안한 집, 자연스러운 집과 비교해서 너무 과거의 목조효과를 내려고 집착하신 경우는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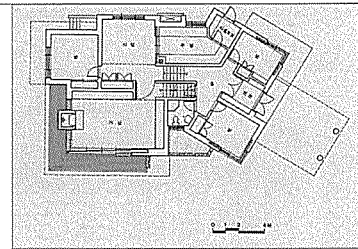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스런 부분이었습니다. 삼하리주택으로 건축가협회상을 받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목구조건축인줄 알았는데 철골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철골은 필연적이었고 철골과 목구조의 접합은 잘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집도 콘크리트 기둥으로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또 나무를 붙였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바깥에도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실패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느낌만은 주고



성북동 B주택(87)



수원주택(91)



수원주택 1층 평면도

싶었던 것으로 내가 처음부터 목구조를 하고 싶은 욕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건축주와도 돈이 더 들어도 나무를 붙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영섭 _____ 평면 내부의 기능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류춘수 _____ 평면은 비교적 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집은 처음부터 주인의 생활패턴이 잡히는 것과 손님맞고 밥 먹는 것으로 크게 양분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입구를 마당 앞쪽으로 하는 대신에 단층으로 후면현관에 들어가고, 방내부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바깥풍경을 보기에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깥풍경부터 보여주고 방 양쪽으로 주인을 위한 큰 두 가지 기능을 나누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딱바로 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딱바로 했으면 모양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전망 좋은 주변풍경이 보는 각도에 따라 모두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어느 곳에서 보아도 다 달리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약간 틀었습니다.

조형적으로 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딱하게 하는 것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형은 나중이었습니다. 좁은 중정을 가지고 개방감 있게 내부에서 보려면 약간 사선으로 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View가 훨씬 좁아지기 때문에 집을 틀었습니다. 이 점이 이 집 설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장치이지만 그나마 의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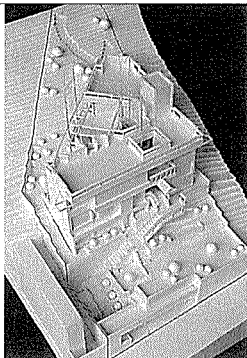
심영섭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중심으로 양쪽에 거실부분과 침실부분을 크게 나누고 매스를 틀어서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의아한 것은 처마선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삼하리주택에서는 본채와 별채 중간에 처마선을 두어 그 공간이 대문의 역할도 하고 앞과 뒤를 관통하는 중간의 영역적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P교수집의 경우는 두 개의 매스를 틀면서 대비를 시켜 놓고 연결하다보니까 모순되게 보이는데, 이는 삼하리주택에서 사용하신 것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나 시각적 효과에 치중한 결과는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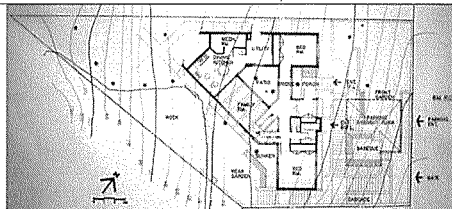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이 집의 스케일이 집을 잘라서 양쪽으로 캔틸레버를 내면 중정을 거의 덮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막난 두 개의 집을 두기에는 작은 하나의 집이라는 그리고 분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현재 거실쪽에서 중정쪽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면적이 너무 넓게 잡혀져서 오픈스페이스가 좁아진 것이 아쉬운데, 하얗든 가운데는 앞의 떠난 연결해 두고 텅 비우고 싶었는데, 지붕이 너무 많이 덮여져서 어중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영섭 _____ 거실내부에 보면 바닥을 한 단 높여서 마루방이라고 명칭을 하였는데, 구성이 아주 이채롭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의 백미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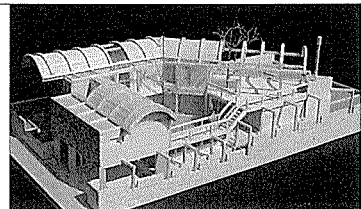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건축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마루를 놓는데 돈만 더 드니 턱없이 더 큰 마루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생각이었는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여 단 차이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칸막이를 두어 필요에 따라 막고 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건축주는 파티션이 없어지면 턱도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현재 주인이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단 차이가 나는 마루방입니다.



평창동주택(92)



평창동주택 1층 평면도



분당주택(92)

심영섭 _____ 그것이 없었다면 거실공간의 성격이 굉장히 단순했을텐데 한 단 차이지만 공간적인 위계나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춘수 _____ 그 다음에 낮은 부분의 거실은 소파 등을 놓을 수 있는 레벨이라면 마루방은 앉아서 유리가 바닥까지 닿아 있는 창호를 통해 외부를 볼 수 있는, 같은 방에서도 의자에 앉느냐 방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는 같은 높이의 창호가 내부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심영섭 _____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적인 주택에서 집안에 앉아서 바깥을 보는 것이라든가 창호의 표정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방부로나 거실부분의 창호구성이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의 류소장님의 작품에는 입면상으로도 다양한 디테일 처리라든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내외부공간의 연계에서 창호 크기가 일률적으로 칸마다 똑같고 고창부분에서도 내부공간에서는 공간적인 효과가 있는데 비해 개구부를 내는데 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류춘수 _____ 고창도 사이드 창까지 모두 유리로 해서 지붕이 공중으로 떠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사이드 창을 막았는데 내부에서 보면 아늑해 보이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개념적으로라도 앉아 있으면 하늘이 보이게 하고 싶어서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집에 지붕도 평지붕으로 단순하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풍경이라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생긴 고창입니다. 조형적으로는 비례도 안 맞는 어중간한 형태이지만 만약 평지붕으로 했을 때 느낄 수 없는 탁트임 때문에 도시에서는 마땅히 반대의 지붕형태를

해야 할 것을 풍경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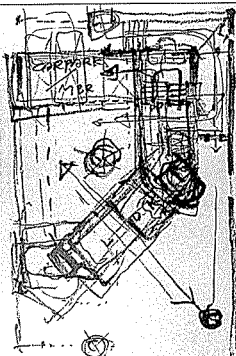
외부 창문에 대해서는 중간에 벽을 붙일 수는 없고 안방은 거실보다 창이 내려와서 밖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모듈을 똑같이 적용하여 폭이 똑같습니다. 단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섭 _____ 상부 고창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지붕이 경사지면서 공간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어진 상태를 놓고 보면 내부에 방범창이 설치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창호나 루바 등으로 목재를 사용해 적절히 처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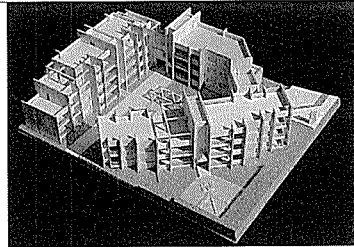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처음에 건축주에게 방범창살은 대형창에서 위에 감춰지도록 디테일을 하고 나머지는 고정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임의로 도저히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막은 것입니다. 피로티도 공간을 따로 마련하더라도 막지 말고 비워두자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막았습니다. 외딴집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하면 모든 것이 싫어지니까. 막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리 대처해서 나무창살 등 다른 디테일을 만들어 드렸을텐데... 아쉬움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섭 _____ 외부의 입면이나 매스구성을 보면, 목구조 속에 전통적인 한국건축을 강조하신 반면에 지붕 형태는 지금까지 즐겨 쓰시던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새롭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전통의 해석과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사고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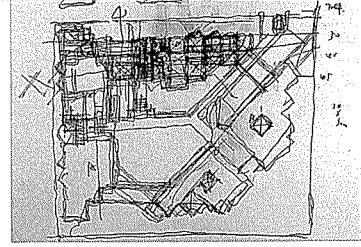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평지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은 지붕이 있어야 하고 처마도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통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당주택 스케치



분당연립주택(92)



분당연립주택 스케치

우리나라 기후, 햇살, 햇살방향 등을 고려할 때 항상 지붕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처마는 깊을수록 좋는데 이 집에서는 주변 풍경이 너무 좋아서 거꾸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상관없이 처마를 올리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케이블시스템으로 디테일을 도로레를 달아서 집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처마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심영섭 _____ 그 동안에 한국성의 표현이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건축계에서도 그 분야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류춘수 _____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집에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루에 단의 차이를 둔 것도 부암동주택에서 법당을 쓴다고 해서 비슷한 것을 시도한 적이 있고, 대학교 졸업 후 2년만에 우리 집을 지을 때 실내에서 단의 차이를 두는 것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하리주택이 건축적으로 많은 의도를 갖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라면, 이 집은 너무 쉽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쉽게 설계하셨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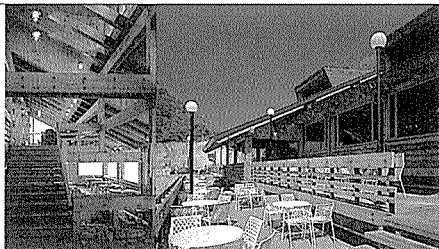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내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류춘수이니까 당연히 저런 집은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영섭 _____ 지난 몇 년간 작업이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일들이 많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기 쉬우나 이번 기회는 그런 시간적 제약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동안의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이 집을 설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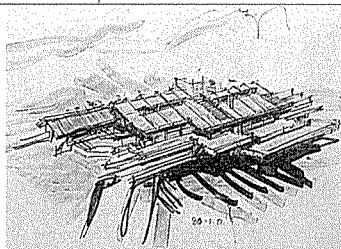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앞서 얘기한 몇 가지외에, 먼 저 중정의 나무 문제인데,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도면에도 표현하면서 활엽수를 심기를 권하였는데 부득불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활엽수로 바꿔 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마루와 전체가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대나무는 공간을 막을 뿐입니다. 그 나무가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또 나무가지가 지붕을 뚫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비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고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앞의 축대를 단면에서 보면 직각으로 잘랐는데 시공 현장에 가보니까 사이사이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경석 쌓기로 하고 있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건축주도 나중에는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공간감이 명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축대나 물길 등 옛날 우리의 돌담형식 등 주변조경이 잘되어 있어 소위 일본식 정원석 쌓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텃밭에 보통 건축주 같으면 잔디를 심을텐데 앞으로 거기에다 채소를 심어서 생활텃밭으로 사용하신다기에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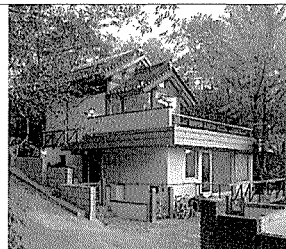
조용훈 _____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비교적 시공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시공자의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까?



한계령 휴게소



한계령휴게소 스케치



부암동 주택(95)

류춘수_____ 시공은 설계, 시공, 인테리어의 경험을 가진 시공자가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웬만큼 잘해서 주인한테 예외없이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데 정말 다행하게도 이 집은 시공을 잘했다고 건축주가 만족해 합니다.

조용훈_____ 그렇다면 이 집은 상당히 행복하게 진행된 경우인데, 대부분 건축가들이 주택 등 프로젝트가 작은 경우에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빗어지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면 주택을 통해서 건축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건설시장 시스템이 건축가와 시공자의 관계에서 특히 프로젝트가 작을 경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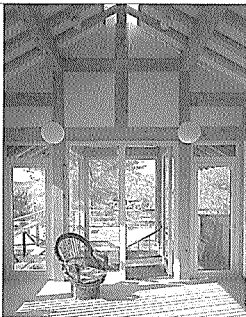
류춘수_____ 예전에 그린벨트내에 규모가 크지 않은 주택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마음에 드는 좋은 평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무조건 대형 시공사를 선정하는 잘못으로 설계변경 등 시공이 엉망으로 끝나 세상에 발표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택공사는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_____ 이번에 재료를 쓰신 것을 보면 목재를 마감으로 사용하고 드라이비트로 외벽처리를 했는데, 국내 목조주택을 보면 실제로 목재는 썼지만 개념상으로는 대부분 미제주택입니다. 우리가 미제목조주택에 밀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개발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상 목조 건축을 방치해 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P교수 주택은 목조주택이 아니지만 그 동안 목조주택을 많이 하신 경험으로 봐서 목조주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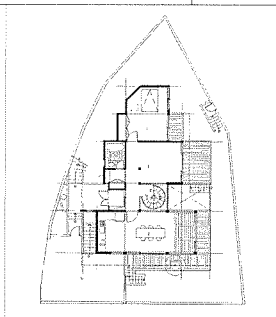
류춘수_____ 기존의 시골농가, 다시 말해

한국의 목조는 가구식 목구조입니다. 즉 2.4~2.7미터 폭 정도의 스판과 보통 120~150밀리미터 정도의 기둥 사이즈를 갖는 가구식 목조기둥을 일정한 모듈로 간단히 세운 것입니다. 지금 소위 2×4월 시스템의 캐나다나 구미의 목구조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념자체가 우리의 가구식에 비해 서양의 월구조는 플레시빌리티가 거의 없습니다. 각목을 가지고 일정한 스타드를 세우고 벽을 붙여서 구조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구식 구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구식목조를 사용했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토담집을 지을 때 그 구조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은 초가집이라도 벽은 항상 구조가 아니라 파티션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재립, 즉 삼베를 짠 것을 격자로 놓고 흙을 바른든지 흙벽돌을 쌓는든지 해서 그냥 그 자체가 얼어져도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양식 목구조는 벽 자체를 구조로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써 왔던 방식은 방의 용도에 따라 필요시에는 트고 닫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개발하여 우리의 주택에 적용되도록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적조나 2×4월식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구식구조가 오히려 계속해서 써야 할 방향이고, 건축적으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미국의 미송을 들여와서 쓰더라도 구조는 가구식 목구조로 만들어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목구조건축이 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파티션의 재료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재료애기가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벽돌은 그 자체가 훌륭한 구조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벽돌은 완벽한 구조체인데 마감재로만 쓰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담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재료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구조로 칸을 간단히 하고 중간에 파티션도 좀 더 전통적인 흙벽돌을 쓰는 방법을 농촌에 보급하여 보편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골 작업실을 개조했는데 그것의 샘플



부암동주택 내부



부암동주택 1층 평면도



해강 도자미술관(87)

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런 장식도 없고 기존의 벽을 허물어 훨씬 쓸모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농촌주택이 건축가의 손을 거치면 정말로 쓰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주택의 불필요한 외부 마감 비용이면 뜨거운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등 단열과 내부의 편리한 기능적 요소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산의 나무토막 하나 베어다가 세우면 그 자체가 충분히 구조가 됩니다. 왜 농촌에 짓는 주택을 지구 도시에 짓듯이 벽돌을 쌓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목구조는 철골로 대응해도 됩니다. 개념이 같고 철골과 목구조의 단면아이값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심영섭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정서와 상황에 알맞은 목조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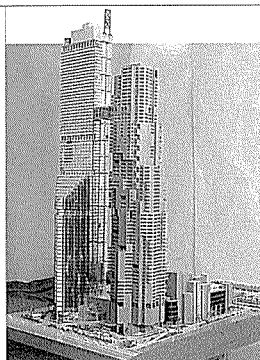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공서나 정부기관 등에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보급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눈썹지동이라도 만들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우리의 현실이 마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붕은 슬레이트만 덮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단열을 내부에 어떠한 방법이든 철저히 해주고 다음에 목구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의 경우 기둥을 2.7미터마다 박고, 중간에 파티션 흠벽돌을 쌓고, 슬레이트를 덮었는데, 나중에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만 있으면 더웠을텐데 기둥 위에 합판 반자틀을 놓고 흠을 쌓은 것입니다. 결국 슬레이트 경사지붕은 모양이 아니고 물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보다도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한 농촌주택을 보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_____ 공간 김수근선생 밑에서 계시다가 독립하시면서 사무실 이름을 이공(異空, Beyond Space)으로 명명하셨는데, 이공을 얼마쯤 찾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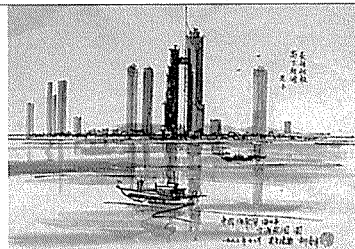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Beyond Space는 보다 나은 공간으로 Better Space의 다른 말인데, 이것은 건축가가 평생 동안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정(Process)이지 결과(Result)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찾는다면 내가 죽었을 때 부분부분에서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편편히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뭉쳐진 행복은 없고, 그것을 한꺼번에 모을 방법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Beyond Space도 내가 설계한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 밝은 사람만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P교수 주택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월드컵 상암구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충분히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삼하리주택에도, 리츠칼튼호텔 비상계단에도 Beyond Space는 있을 것입니다. 먼 훗날 그것들을 누군가 연구해서 모은다면 다행이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Beyond Space는 흩어져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심영섭 _____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활발한 작업을 기대하며, 특히 월드컵 상암구장이 좋은 작품으로 탄생되어 2002년에는 당당히 한국의 건축가 류춘수의 작품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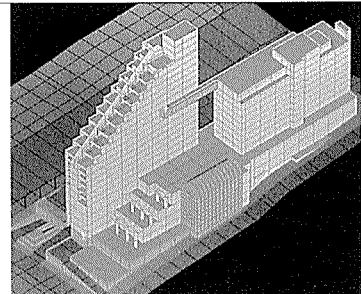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고맙습니다.



중국 868타워 모형(92)



868타워 스케치



리츠칼튼호텔(90)